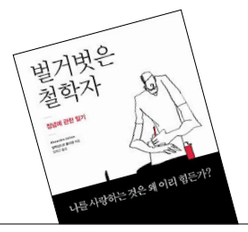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클릭! 이 책

벌거벗은 철학자

알렉상드르 졸리앵 지음 | 임희근 옮김
문학동네 펴냄 | 1만 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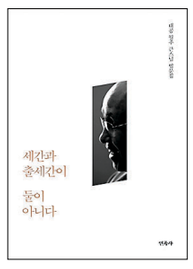
나를 사랑하는 것은 왜 이리 힘든가?

이 책은 강박관념과 약점과 혼돈과 상처, 그리고 숱한 삶의 모순 속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기록이다. 저자는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온 철학자다. 졸리앵은 태어나 지금껏 하루도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이 책은 졸리앵이 철학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삶의 진실과 의미,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자신의 내밀한 정념에 대해 쓴 일기 형식의 글이다. 그가 쓴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쓰기 어려웠다고 고백하는, 가장 개인적인 글이며 그렇기에 이 책은 기만과 가식 없이, 말과 담론과 일상 사이에 있는 심연서 나온 글이고, 거기서 이뤄진 자신의 정념(passion)과의 전투 기록이다.

"부처님 생각하면 어떻게 살지 해답 나와"…부처님 닮으면 된다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월주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6500원



태공 월주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 중앙종회의장(5대) · 총무원장(17대, 28대) 등을 역임하며 한평생 불교 중흥에 힘쓴 한국불교의 역사를 새롭게 쓴 불교계 원로요, 우리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다. 지금은 작고한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기독교의 강원룡 목사와 함께 우리나라서 존경받는 대표적인 3대 종교지도자로 손꼽혔다.

또한 태공 월주 스님은 불교계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온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겸 이사장 등 다양한 시민활동의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사)지구촌공생회 · (재)함께 일하는 재단 · 나눔의 집 이사장 등으로 활동을 펼쳐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친근한 종교 지도자다.

이번에 새로 펴낸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는 태공 월주 스님이 앞서 말한대로 보통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법회와 행사 등서 한 법문과 축사, 권두언, 언론 인터뷰 기사 중에서 정수(精髓)를 가려 뽑아 편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한 법문집이 아니다. 태공 월주 스님의 사상과 원력과 실천행이 오롯이 담겨 우리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는 행복의 나침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태공 월주 큰스님의 일상을 담은 김묘광 작가의 사진들이 삽입돼 이 책에 깊이 배어 있는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환기시키고, 법문할 때 즐겨 인용한 경전 구절들이 편편마다 맨 앞에 실려 있어 이 책의 깊이를 더해준다.

법문과 축사, 기사 등서 정수 뽑아
한평생 깨달음의 사회화에 바쳐
"보현행으로써 깨달음 확신 얻자"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 내면의 부처를 믿고,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처의 마음으로 나누고, 스스로 부처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지극한 안락을 누리며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서로 이어져 있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연기의 이치를 깨달을 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연기법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입니다"라고 당부한다.

태공 월주 스님은 1954년 6 · 25 전쟁이 끝난 직후 출가를 결심했다고 한다. 전쟁을 통해 체험한 뼛속까지 저며 드는 아픔은 존재에 대한 탐구로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 모색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혼란한 세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침내 발견한 수행자의 길,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 분명 고뇌를 해결할 진리가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불법의 망망대해로 걸어 들어갔다. 그 후 60여 년 동안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태공 월주 스님. 고통 받는 중생을 보며 발심 출가한 스님은 한평생 오로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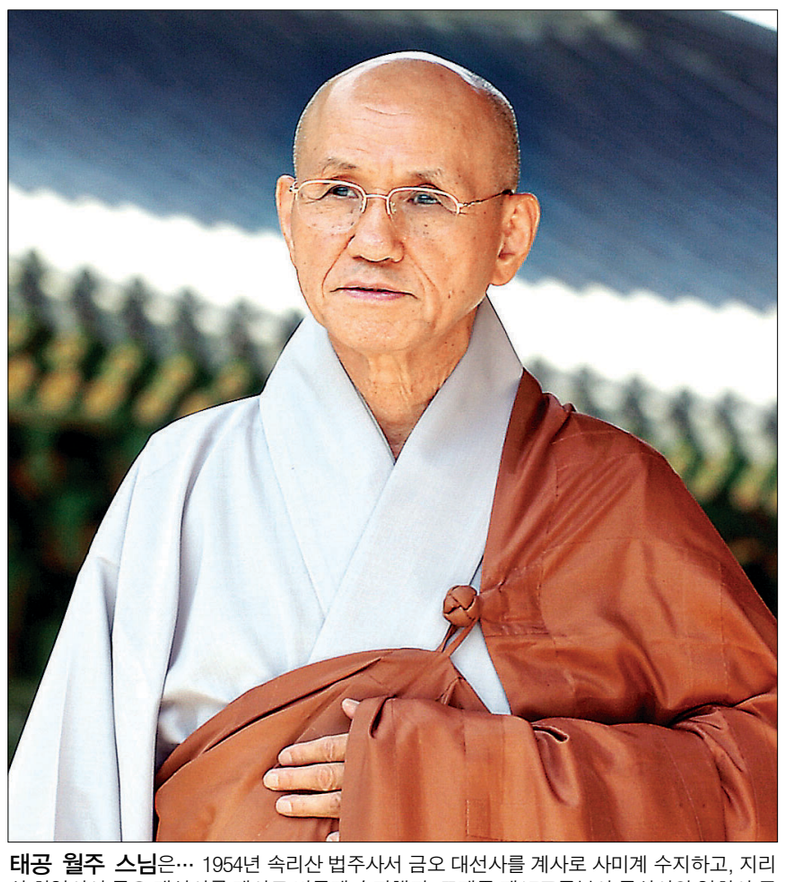
월주 스님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때 부처님을 생각하면 곧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부처님을 닮으면 됩니다. 부처님의 삶에서, 아니 부처님의 출가 정신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영원히 사는 길,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보통 사람들이 한평생 갈구하는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하신 부처님을 보면서 마음에 미세한 변화라도 생겼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불러 일깨우고 부처님처럼 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한다.

또한 태공 월주 스님은 자비행 · 실천행을 다음과 같은 한 마디로 표현한다. "밥이 필요한 사람에겐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겐 약을 주어야 한다"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현실선 실현하기 힘든 일이다. 태공 월주 스님은 지구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그들이 고통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심과 발원에 따라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을,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물을 파주는 보살행을 펼치셨다. 전쟁과 기근, 각종 질병으로 쓰러져 가는 무수한 생명체들을 위해 그들이 사는 고통스러운 현장을 수없이 찾아다닌 월주 스님. 사회고와 시대고로 불행을 겪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염원으로 고통이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시며 대자비 보살행을 실천한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나눔을 통해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윤회의 고통서 해방된 부처님이라는 월주 스님의 법문, 그 삶과 진정성 담긴 주옥같은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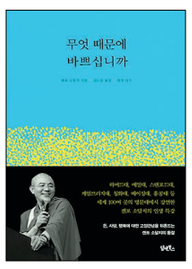
"불법은 세간에 있으며(佛法在世間)/세간을 떠나서 깨닫지 못하네(不離世間覺)/세간을 떠나서 보리(깨달음)를 찾는다면(離世覓菩提)/그것은 마치 토끼뿔을 구하는 것과 같다(恰如求兎角)."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공 월주 스님은… 1954년 속리산 법주사서 금오 대선사를 계사로 사미계 수지하고, 지리산 화엄사서 금오 대선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와 영화사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통합종단 이전, 제2,3,4,5,6,7대), 제5대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17대, 28대)을 지냈다.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불교인권위원회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명선거실천시민연합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 공동대표 겸 이사장도 역임했다. 현재 금산사 · 영화사 조실로서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재)함께 일하는 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장으로 활동중인 월주 스님은 불교계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왔다.

"인생의 바탕색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켄포 소달지 지음
신노을 옮김
담앤북스 펴냄
1만 6천원

이 책은 '열심히 살았지만 뭘 했는지 모를 하루'를 반복하는 현대인에게 티베트 스님이 던지는 화두다. 세계 100여 곳의 명문대에서 강연해 온 켄포 소달지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돈, 사랑, 행복에 관해 직설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강단에 선 켄포 소달지가 불교의 가르침은 물론 동서양의 철학과 현대 과학을 넘나들며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은 '즉문즉설'로 유명한 법륜 스님을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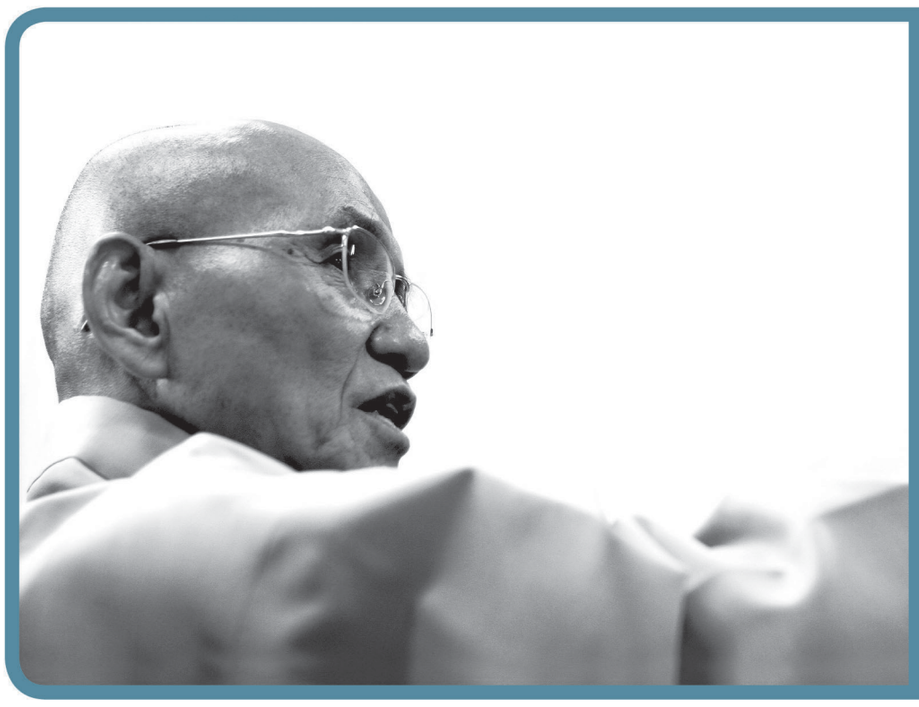
켄포 소달지는 현대인 대다수가 열망하는 부와 사랑도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으며, 사랑이란 감정도 영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불교서 전하는 공성(空性)과 무상(無常)의 이치를 조금만 이해해도 삶이 한결 편안해진다고 말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은 고정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변하며 소멸한다. 사랑, 슬픔, 분노 같은 감정과 생각 역시

부 관리 지혜, 선 수행으로 계발
마음 속 번뇌 줄이는 방법은 '자족'
운명 바꾸려면 '선한 마음 품어라'

마찬가지. 켄포 소달지는 이러한 불교의 이치를 고대 철학, 현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례 등을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세상사가 무상하니 스님들처럼 산속에서 수행만 하며 살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는 켄포 소달지가 강연장서 수없이 받은 질문일 것이다. 그는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키우기 위한 실천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좌선, 봉사, 채식, 동물보호… 등등. 그가 제안하는 여러 방안의 전제 조건은 나 자신, 즉 '아(我)'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일상서 겪는 모든 괴로움이 바로 이것에 대한 집착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는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타심을 키우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서 벗어나 기쁨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과 행동, 즉 불교서 말하는 보리심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준다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노동과 수고 없이는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 우리 모두 '갑'인 동시에 '을'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켄포 소달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책은 모두 12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마다 강연 현장서 이뤄진 '즉문즉설'이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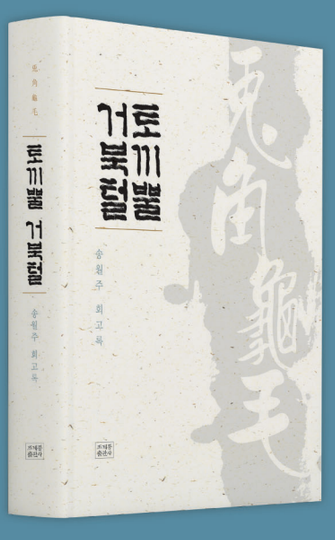
불교 정화 / 10·27 법난 / 개혁종단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현장에서
IMF 구제 금융사태 / 위안부 할머니 문제 / 세계 빈곤 한국사와 세계사의 현장에서
온몸 부딪혀 실천해온 송월주 대종사의 보현행원의 길

/송월주 회고록/

토끼뿔 거북털

| 글 · 월주 스님 | 46배판 변형(175X230) | 724쪽 | 양장 및 케이스 | 가격 30,000원 | 조계종출판사 |

"이 책은 송월주 스님이 출가 이후 절차탁마하며 보낸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수십 년 시민사회운동에 발 딛고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느낀 소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유했던 여러 인물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워낙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왔던 스님이기에 책 속에 실린 이야기는 때론 조계종의 근현대사이며 또 때론 질곡과 영광을 함께했던 한국사이기도 하다."



월주스님과 〈토끼뿔 거북털〉에 보낸 언론의 찬사!

- 회고록은 한국 현대 불교의 역사와 불교계 사회복지 역사와 다름없다. * 조선일보
- 월주 스님의 개인사는 조계종단의 개혁사와 맥을 같이 한다. * 중앙일보
- "이판이 아니면 사판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사판을 하지 않으면 이판도 의미 없다." * 동아일보
- 월주 스님의 보리심은 국경을 넘었다. * 한겨레
- 월주 스님은 자신의 수행과 자비행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형행'이라고 표현한다. * 한국일보
- 불교가 세상을 등진 채 산중에만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 연합뉴스

조계종 출판사 (주)조계종출판사 문의
02-720-6107~9 www.jogyebook.com